

## 종합·해설

## ■ 문·안 단일화 중단, 2002년 노무현-정몽준과 차이점은?

2002년에

## 여론조사 방식 유출 문제로

2012년에

## “문, 신뢰 깬다” 안측서 거부

18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 통합 당 문제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열차가 출발한 지 이틀 만에 꺾기면서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이 새삼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2002년 당시 단일화 때도 합의문까지 발표했다가 여론조사 방식 유출 공방이 벌어지면서 단일화 협상이 깨지는 등 ‘가다 서다’를 반복한 끝에 간신히 재합의에 이르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2년엔 11월 7일 노무현 후보 측이 이해찬 의원, 정몽준 후보 측이 이철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구성한 뒤 8일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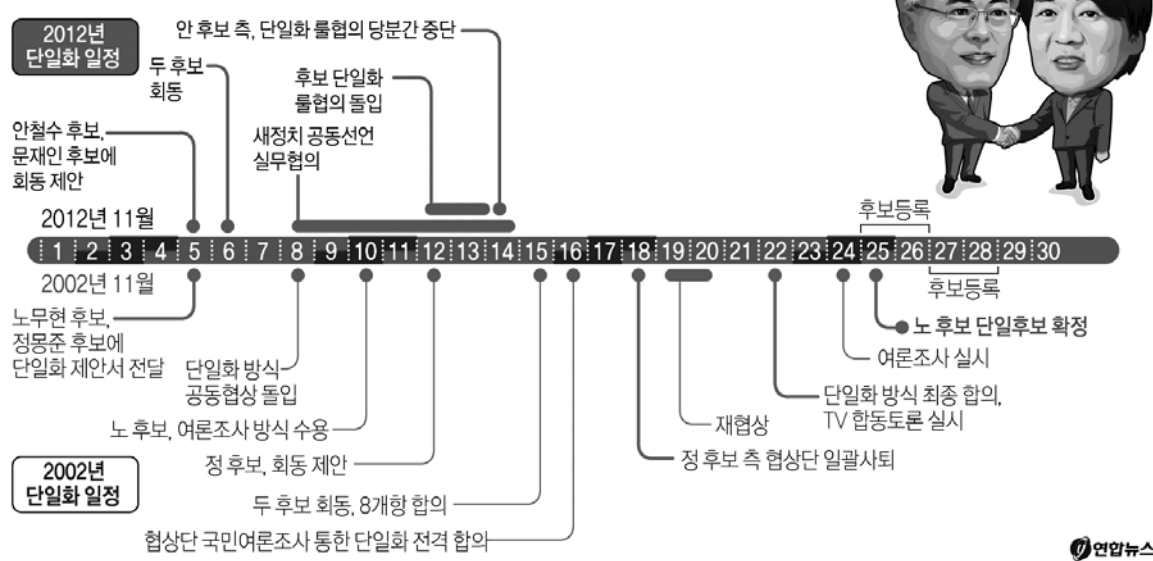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 후보가 같은 달 15일 회담을 제안했고,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단일화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16일 단일화 방식(국민여론조사), 17일 세부절차 등이 잇따라 결정되면서 협상은 일상전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18일 한 언론사에 여론조사 방식이 보도되면서 유출 공방 속에 협상 자체가 깨졌다.

19일 노 후보 측 신계륜 비서실장과 정 후보 측 민창기 홍보위원장 간에 어렵사리 창구가 개설됐고, 다음

## 대통령 후보 단일화 일정 비교



날 TV 합동토론과 여론조사 방식의 제정 등을 위한 재협상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시 무산 위기로 내몰렸다.

그러나 노 후보가 이를 뒤 역선택 방지와 관련한 정 후보 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단일화 협상이 타결됐고, 결국 TV 합동토론(22일)과 여론조사기관(24일)을 거쳐 노 후보로의 단일화가 확정됐

다.

이번 단일화 과정 역시 중도에 협상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2002년과 흡사한 모습이다. 다만, 2002년에는 단일화 방식 합의가 이뤄진 뒤 여론조사 방식 유출문제로 협상이 깨질 위기에 처했던 반면, 이번에는 협상이 진행되기도 못한 초반부터 협상이 중단됐다는 것은 차이점이다.

또 2002년에는 협상단이 먼저 꾸려

진 뒤 노·정 두 후보가 만나 단일화를 합의했다면, 이번 협상은 문·안 두 후보가 먼저 회담해 단일화 합의를 끝낸 뒤 협상이 들어갔다는 점도 다른 부분이다.

2002년에도 고비 때마다 노·정 두 후보가 직접 결단하는 방식을 통해 매듭을 풀어나간 것처럼 이번에도 양 후보가 전면에서 협상 중단 사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를 밀어붙였으면서 일언반구 사과와 반성 없이 선거 때가 닥쳐오니 부활시키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상공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부산을 발전시킬 비전을 하루빨리 갖추는 문제였다”면서 “자를 키워준 부산에 이제 제대로 빚을 갚을 기회”라며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후보가 최근 경제민주화를 놓고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견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번 공약 발표에서 그동안의 논란을 털어낼 지 주목되는 것이다.

박 후보는 야권으로부터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재벌개혁 측면에서 국민행복추진위가 건의했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등 3대 핵심 공약을 뺀 것으로 예상된다. 한 측근은 15일 “경제민주화 공약 80여 개 중 이들 3~4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며 “경제민주화에서 발을 뺐다는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후보 지지기반인 보수층 표심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도 확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기보다 교육·여성공약에 공을 들이며 중산층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바꾸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애초 이날 교육정책을 발표하려다가 연기한 것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후문이다. 특히 교육정책은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관심이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 유권자를 위한 공약도 다른 분야에 비해 폭이 넓다. 그동안 박 후보에게 씌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던 30~40대 직장여성·전업주부를 겨냥한 ‘틈새전략’ 성격이 강하다. /박지영기자 jpkpark@kwangju.co.kr

## 안, 광주 콘서트

## 단일화 승부수?

18일 조선포 해오름관에서

해피스 회원 5000명 집결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단체들이 오는 18일 야권 단일화의 ‘최대 승부처’로 손꼽히는 광주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안 후보가 직접 참석해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세 확산과 함께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안철수와 함께하는 ‘광주·전남 시민정책포럼’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 팬클럽 ‘안철수와 해피스(약칭 해피스)’는 18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조선포대학교 해오름관에서 ‘해피스 광주콘서트’를 개최한다.

‘시민승리! 정치교체! 정책교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콘서트에는 전국 각지의 해피스 회원 5000명 이상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는 해피스 회원으로 가입된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 ▲광주진심포럼 ▲전남진심포럼 ▲여수진심정책포럼 ▲광양시민정책포럼 ▲광주전남혁신포럼 ▲함께사는 세상 철수처럼 ▲CS정치쇄신연대 ▲광주철수정책개발연구원 등 지역의 지지단체 회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전망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정가라운지



## 모교서 일일교사 안후보 부인

안철수 대선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15일 여수를 방문, 모교인 동주중학교에서 일일교사 체험을 하고 있다. /여수=임문택기자 mtm1@

## 진보정의당 광주시장 창당 착수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이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창당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진보정의당에 따르면 광주시장 창당준비위원회가 장화동 전 광주시민센터 대표·김상호 전 민노당 광주시장 사무처장·강

은미 광주시의원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했다. 진보정의당 광주시장 창당준비위는 최근 발기인대회를 갖고 운영위원 7명을 선출했으며 내년 3월 창당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 김승남, 국회서 우주로봇포럼 개최

민주당 김승남 (고흥·보성)은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우주로봇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전남대, 우주로봇포럼, 우주로봇연구센터 등이 주최했으며, 박병석 국회부의장 전 유대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이석한 우주로봇포럼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주로봇산

업을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향과 국회차원에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산·학·연·관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통합 당 문제인 대선 후보는 15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지만 이틀째 부산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이어갔다.

문 후보는 특히 안 후보측의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는 등 사대 수습에도 직접 나섰다. ‘통 큰’ 모습으로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으로써 안 후보와 자신의 고향이자 본선의 승부처인 PK(부산·경남) 민심에 다가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공항은 애초대로 ‘동남권’ 공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측이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새 명칭을 사용하려고 한 것은 대선 후보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

## 문, 안 달래며 이틀째 PK잡기

## 동남권 신공항·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 약속

도가 숨겨져 있다”며 “한 번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한 심사를 하되 정치는 리를 배제하면 타당성 있고 승복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부산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면서 경남도의 공동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선 “지리상 근접해 있고 공동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공동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연유를 잘 모르겠다”며 “정권을 잡게 되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마항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부산 중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을 방문해 “아직도 선상 부채자 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를 밀어붙였으면서 일언반구 사과와 반성 없이 선거 때가 닥쳐오니 부활시키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상공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부산을 발전시킬 비전을 하루빨리 갖추는 문제였다”면서 “자를 키워준 부산에 이제 제대로 빚을 갚을 기회”라며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사정상 · 급매

## 신안동 제일오피스텔(사무실전용)

1. 14층 건물 중 2층 코너 50평
2. 주차 3대 무료, 대형 주차장
3. 실내인테리어 2000만원 소요
4. 용자 5천만원 정도 가능
5. 현, 보 1천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6. 급매가 8500만원(시세 1억1천만원)
7.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능

문의 : 010-3605-5000  
010-4667-9300

##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증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 총장로 [5층백화점]                            | 숙박시설 [치평동]                           |
|----------------------------------------|--------------------------------------|
| 대2708㎡, 건18171㎡<br>감정가 310억 최저가 130억   | 대704㎡, 건2042㎡<br>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
| 소매동 [독서실]                              | 신안합해 [합정, 판대시]                       |
| 대561㎡, 건1439㎡<br>감정가 12억4천<br>최저가 6억9천 | 대4706㎡, 건1123㎡<br>감정가 18억<br>최저가 10억 |
| 전북김제 [물류센터]                            | 전주시덕진구[유흥주점]                         |
| 대8076m2, 건5004m2<br>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     | 대665㎡, 건988㎡<br>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
| 화순이양 [공장]                              | 보성읍 [상가]                             |
| 대6536㎡, 건2056㎡<br>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 대685㎡, 건763㎡<br>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
| 총장로 [근린주택]                             | 목포대양동 [수양관]                          |
| 대215㎡, 건306㎡<br>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 대1786㎡, 건408㎡<br>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한다.
- 찬모(여)2명, 설갯이(여)1명, 홍서방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점수사 면접, 상담가능(시간여유) H.010-7570-7525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8227-7759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화정동 [예산점]                                               |
|---------------------------------------------------------|---------------------------------------------------------|
| ▶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br>▶ 감정가 39억8천<br>▶ 매매가 25억5천     | ▶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br>▶ 감정가 41억5천<br>▶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
| 군산 [바이오에너지공장]                                           | 영암 [노인병원]                                               |
| ▶ 대지 3025평 > 건물597평<br>▶ 감정가 99억4천<br>▶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 대지 2878평 > 건물 2209평<br>▶ 감정가 95억2천<br>▶ 매매가 27억3천     |
| 목포 상동[숙박시설]                                             | 화순 화순읍[주유소]                                             |
| 대170평 건544평<br>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 대1095평 건105평<br>감정가120억 최저가 14억1천                       |
| 무안 망운[숙박시설]                                             | 구례 용방[공장]                                               |
| 대257평 건346평<br>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                           | 대1295평 건363평<br>감정가113억 최저가9억2천                         |
| 화순 도곡[무인텔]                                              | 광산구 신창동[대지]                                             |
| 대1904m2, 2628m2<br>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 대150평<br>감정가8억7천 최저가6억1천                                |
| 나주중앙동[근린상가]                                             | 서구 치평동[숙박시설]                                            |
| 대330평 건480평<br>감정가123억1천 최저가16억2천                       | 대213평 건617평<br>감정가132억 최저가122억4천                        |
| 광산구 월계동[상가]                                             | 광산구 용동[공장]                                              |
| 대135평 건81평<br>감정가6억3천 최저가3억6천                           | 대400평 건215평<br>감정가4억7천 최저가3억3천                          |

\* 함께할 운영자 및 연회원을 모집합니다